

혼자보다 함께 잘되는 게 좋아요

친구를 놀려야만 내가 잘될 수 있다고 믿는 청소년이 많은 입시 경쟁 사회이지만 혼자보다 함께 잘되는 게 좋다고 말하는 순수 청년이 있다. 바로 낙생고등학교 1학년인 박세영 군. 평소에도 의리 좋고 친구가 많은 그는 어느 휴일 새벽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혼자서만 도망가지 않았다. 위험을 무릅쓰고 가가호호 집을 두드리며 잠든 사람들을 깨워 화재 사실을 알림으로써 인명 피해를 막았던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인 초동 대처로 인명 피해를 막은 박세영 군은 이기적인 세태를 돌아보게 하는 우리 시대의 '작은 영웅'이다.

나 혼자만 살 수 없다!

“세영 아빠! 세영아! 일어나, 일어나요!”

2014년 6월 7일. 세영 군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토요일 새벽의 고요를 깼다.

잠결에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 박세영 군은 학교 독서실에서 7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는 스터디 모임을 생각하면서 졸린 눈을 비볐다. 그때 엄마의 한마디가 덜 깬 잠을 날려버렸다.

“일어나라고! 불 났어요! 불!”

박세영 군은 벌떡 일어났다. 아빠도 거실로 뛰어 나왔다. 아래층인 12층

의 어느 지점에선가 매캐한 냄새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내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휴가 계속되는 토요일 새벽 6시. 아파트 주민들은 아직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빠가 박세영 군에게 말했다.

“세영아, 침착해야 한다. 우선 엄마와 누나를 부축해서 내려 보내자. 그리고 사람들을 깨워야 해!”

“어떻게요?”

“네가 위층(14, 15층) 두 층을 맡고, 아빠는 12층 아래로 내려가면서 사람들을 깨우마. 알았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화재가 났음에도 화재경보기는 멍통이었다. 평소 오작동이 잦아 사람들의 민원 신고가 이어지자 관리사무소에서 화재경보기를 일시적으로 꺼 둔 것이 화근이었다. 그래서 아빠는 사람들에게 직접 알리는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다. 박세영 군은 아빠의 지시대로 위층으로 달려 올라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다.

“일어나세요. 불났어요! 불이야!”

불이 무섭다는 생각을 할 새도 없이 사람들이 빨리 깨어나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손바닥이 빨개지고 아픈 것도 느끼지 못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박세영 군은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집마다 비상벨을 누르고, 주먹으로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불이야!’를 외쳤어요. 그때는 무서움보다 한 가지 생각 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두드리는 이 소리를 듣고 제발 깨어나길. 우리 가족은 다 나왔는데, 저 안에 있는 사람들도 누군가의 가족이니까 꼭 빠져나오기를, 그런 마음이었어요.”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한 박세영 군

한 소년의 힘찬 두드림은 생명의 소리가 되어 사람들을 깨워서 생명의 길로 인도했다. 비록 발화점인 12층 가구가 모두 전소되었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큰 인명 피해 없이 모두가 대피할 수 있었다.



웃음이 많은 세영 군과 평소 '의리'를 강조하는 남은영 담임선생님

배려를 아는 의리남!

화재는 진압되었다. 그러나 박세영 군에게 그날의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특히 방화문이 닫히면서 밀폐된 공간에 유독가스가 가득 차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었던 순간의 공포가 여전히 생생했다. 사람들을 구하지 못할까 봐 가슴이 타들어가던 기억도 났다.

잠을 자다가도 불이 날까봐 불안해하고 지나가는 차의 경적 소리만 들려

도 그 소리가 소방차 사이렌과 사람들의 비명처럼 들려서 식은땀이 흐르곤 했다. 아픈 기억은 서서히 희미해져 가지만 이전보다 좋아진 게 있었다.

“불이 난 이후, 아파트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 그때 참 고마웠다는 인사도 많이 들어요. 사람들과 진심으로 가까워진 것 같아요.”

또 박세영 군은 남을 위해 행동하는 것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화재 사건을 겪으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행동할 때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겪어보았기 때문이다.

“아이스하키처럼 팀이 함께 하는 운동을 오래 했거든요. 그런 운동을 할 때도 팀을 위해 내가 손해를 보면 더 좋은 경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잘되는 것보다 다 같이 잘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지독한 입시경쟁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박세영 군은 혼자 잘되는 것보다 다 같이 잘되는 것의 가치를 운동에서 배웠다. 박세영 군의 남다른 마인드에 대해 담임교사인 남은영 씨는 이렇게 말한다.

“요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신 외에는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박세영 군은 평소에도 친구들을 배려하고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의협심이 강합니다. 자기 것만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화재 현장에서 한 일을 들었을 때 ‘세영이 너라면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기적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죽음의 위기로 내몰기도 하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위기에 빠



프로선수를 꿈꿨을 정도로 열심히 했던 하키. 운동을 통해 다 같이 잘되는 협력을 배웠다.

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도 한다.

우리는 입시로 인해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걱정한다. 하지만 세영 군처럼 ‘다같이 행복한 것이 좋다’고 말하는 어린 영웅들도 존재한다.

위기의 순간에 주변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 사회를 받치고 있는 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작은영웅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nterview

박세영 /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조한 고등학생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자!”

Q. 나이드 어린데 화재 현장에서 겁이 나지는 않았어요?

A. 불길과 연기를 보고 당황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무섭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사실 별로 안 날 정도예요. 엄마랑 누나가 정신이 없고 걷지도 못해서 부축해서 내려간 것과 사람들을 깨우던 장면이 생각나요.

Q. 본인도 유독가스를 마셔서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고 하던데...

A. 네. 방화문이 닫히면서 가스를 마셨는데요. 숨이 잘 안 쉬어지더니 목에 가래가 끈 것처럼 갑갑하고 갑자기 어지럽고 멍해졌어요. 아마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그때 아빠가 저를 한 대 쳐 주었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죠.

Q. 구해준 사람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A. 출동한 소방관 아저씨가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피하라고 전화를 계속 하는데 정작 자기 가족들은 잠이 들어서 전화를 안 받더라요. 그런데 제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뒤늦게 피신을 할 수 있었다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두가 누군가의 가족이니까 생명이 소중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Q. 가족들만 데리고 대피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A. 바로 얼마 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뉴스를 보면서 자기 혼자만 살려고 도망가는 게 참 이기적인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 또래 친구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 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또 아빠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뛰시니까 나도 아빠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들었고요. 다 끝나고 나서야 긴장이 풀려서 담임선생님께 전화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Q.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좌우명은 어떤 게 있어요?

A.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자 그거예요. 친구들 사이에도 자기 것만 챙기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운동할 때도 이기적으로 하면 지잖아요. 운동도 학교생활도 서로 믿고 도와 주는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